

광주·전남 유권자 절반 이상 “현역 의원 바꿔야”

무등일보·뉴스시 광주전남본부·사랑방닷컴

추석특집 2020 총선 정치·현안 여론조사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220여일 앞둔 상황에서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이번 추석 연휴는 내년 총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입지자들에게 대한 여러 정보가 교환되는 정치적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SRB미디어그룹 무등일보는 뉴스시 광주전남본부, 사랑방닷컴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광주·전남지역민의 정치의식과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2020 총선 호남의 선택-뉴 DJ를 키우자'를 모토로 지난달 26일부터 2주일 간 연재했던 '누가 뭐냐'에 이은 두번째 기획이다. 광주·전남지역민들의 건전한 정치적 담론 형성과 건강한 논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무등일보는 의미있는 기획과 수차례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민의 내년 총선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의정활동 긍정 평가하면서도 현역 교체 희망 호남 대변 새로운 정당 필요성은 소수만 느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는 고공 행진 이낙연 총리 차기 대선후보 지지 압도적 1위

광주·전남지역민 절반 이상은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 수행에 대해 긍정평가를 하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인물교체를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무등일보가 뉴스시 광주전남본부, 사랑방닷컴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6일 광주·전남지역 만19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정치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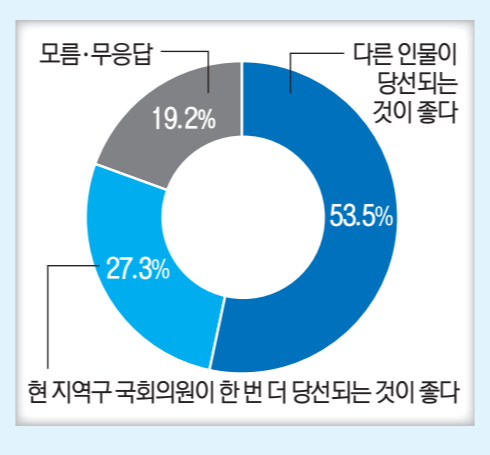
8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 '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7%인 반면 '잘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5%에 그쳤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당선을 희망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27.3%에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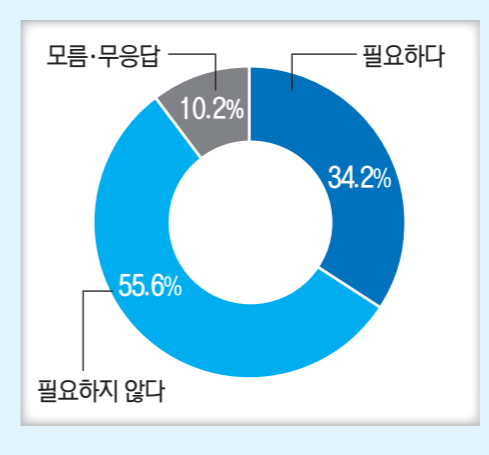
과했고 53.5%는 다른 인물이 당선되기를 희망했다. 즉, 두명 중 한명 이상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긍정 평가하면서도 절반 이상은 현역의원의 교체를 원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내년 총선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3분의 1 가까운 29.5%가 '현역 의원 심판'을 들어 인물 또는 세력교체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의 이해를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2%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55.6%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의원을 갖고 있는 (가칭)대안정치가 창당을 추진하는 제3당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지역민이 더 많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 희망 여부



광주·전남 대변 새 정당 필요성



해석된다. 또한 지역민의 상당수는 기존 정당에 호남의 이해를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물론 3분의 1 정도의 지역민은 신당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신당의 성공 조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1%가 '지역발전 정책비전 제시'를 들었고 22.3%는 '새 인물 영입'을, 7.4%는 '대통령 후보급의 리더'를 각각 꼽았다. 지역발전과 인물교체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72.0%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신뢰를 보여줬다.

정당지지도에 있어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67.1%로 압도적이었다. 정의당이 6.7%로 뒤를 이었고 기타 정당의 지지도는 3% 미만이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66.6%, 김영록 전남도시장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5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동안 대부분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이 시장의 지지도가 김 지사보다 높은 점은 주목된다.

차기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도의 경우 전남 출

신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7.4%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유시민·조국·이재명·박원순 등이 뒤를 이었으나 지지도는 2-5% 수준이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에 대한 긍정 평가는 70%를 기록했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에 대한 지지도 50%를 넘었다.

광주 공군항 이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방부(28.6%), 광주시(18.4%), 전남도(12.3%) 순으로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전남 시·도민 5천139명과 전화 연결에 성공해 이 중 1천3명(광주 503명·전남 500명)이 설문을 완료, 응답률 19.5%를 기록했다.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로 우선 19%, 무선 81%를 합산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표본은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유선 RDD(무작위 생성 전화번호를 통한 임의 걸기) 표본 프레임에서 2019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를 할당해 무작위 추출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경기 기자 jkpark@srb.co.kr

강풍 동반 '링링' 강타 광주·전남 피해 '속출'

수확 앞둔 벼 쓰러지고 과수 낙과

제13호 태풍 '링링'이 7일 서해안으로 북상하며 광주·전남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다만 '링링'의 빠른 진행속도로 인해 피해 규모는 당초 우려보다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8일 광주·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태풍 '링링'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수확을 앞둔 벼가 쓰러지고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강풍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550여건 접수됐다. 가로수 쓰러짐 신고는 광주 40건, 전남 76건이었다. ▶관련기사 7면

광주의 경우 북구 오치동 공사장 가림막이 쓰러지는 등 간판 파손 44건, 공사장·건물 시설물 일부 파손 28건, 가로수 전도 27건, 전신주 파손 7건, 주택 파손 5건 등 총 243건의 태풍 피해가 났다.

전남에서는 이날 새벽부터 가로수 전도, 신호등·간판·지붕 파손 등 4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3천849ha 벼가 넘어지는 등 농작물 도복 피해 면적은 4천13ha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해남 1천ha, 영암 680ha, 강진 407ha, 나주 350ha, 곡성 300ha, 보성 228ha, 구례 155ha 등이다. 특히 낙과 피해가 컸다. 피해 규모는 배 1천79ha, 사과 62ha, 감 15ha, 무화과 3ha, 자두 1ha 등 모두 1천160ha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나주 465ha, 영암 320ha, 순천 98ha, 곡성 73ha, 보성 56ha, 신안 55ha, 구례 24ha 등이었다.

정전피해도 속출했다. 신안 4천285세대 등 광주·전남에서 총 1만4천600세대가 정전되기도 했다.

전남지역 도로·항구 시설물 등 공공 시설물 6곳도 유실됐다. 진도 고교 해안도로는 1곳은 유실 정도가 심해 통행이 제한됐다. 추석 이전까지는 임시도로를 개설, 통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소규모 어항인 장흥 회진 신상항·해남 화산 구성항도 시설물 유실 피해가 났다. 국가 지정 어항인 신안 흑산도 가거항에서는 북구 공사 중인 방파제 옹벽 50m 가량이 유실됐다. 선정기자 wordflow@srb.co.kr



- 대통령 평가·대선후보 선호도 2
- 현역의원 지지도·제3당 필요성은 3
- 광주시장·전남지사 직무수행평가 4
- 조국 후보자 적절성·지소미아 평가는 5

4대 불법주·정차 안 돼요!

아니기 누가 이런 곳에 주차를 해둔 거야

어떻게 내리라고

누가 모퉁이에 주차를 해서.

꼬마야 위험해

이후~이런 불법 주·정차를 아떡하지!!!

이런 불법주·정차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먼저, 앱을 실행해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을 선택하고, 신고위치를 확인한 후 제출!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주세요.

위 4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세요!